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9 Spring Vol.56



10가다

SCHAEFFLER

SCHAEFFLER

Classic Music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9 SPRING Vol.56

Classic Music

Classic Music



세플러원을 모바일로도 만나보세요.

CONTENTS

세플러원은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입니다.

6

테마 즐기기
go back to the past

10

테마 에세이
추억 속으로 돌아가
꽃비 같은 위로를 받다

14

백 투 더 픽처
사진 타고 떠나는 추억여행

16

테마 인터뷰
자연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기
<비전화공방>

20

테마 돋보기
“나, 돌아갈래~”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직장인 우울증’

24

어서와! 리더는 처음이지?
‘위기는 기회다’
지속성장 가능한
베어링부품 MU를 만든다

28

팀과 함께
부릉부릉~ 슈웅~
ATV·카트 타고 봄바람을
가른다

32

식사를 합시다
퓨전 한정식 <예원>
12첩 반상으로 대접받는
느낌이랄까?

36

덕후열전
PC방 키즈들 어른이 되다
- e스포츠 동호회

40

꽃보다 편지
두근두근
사랑이 담긴
손편지가 왔습니다!

44

Schaeffler FOCUS
세플러,
도시화 해법을 개발하다

49

Schaeffler Highlight

55

Mail Box

돌아가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3월의 어느 날.
전용기개발팀의 입사동기
정혜윤, 이지원, 이흥우, 조경래, 이동기 사원은
세플러코리아 테크놀로지 한쪽에서
웬훔을 발견하는데...

무심코 발을 디딘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여행이 시작되고...

그들은
잊지 못할
1970년의 봄날로 돌아간다...



go back to the past

“

돌아가 봅니다.

진짜 교복을 입고, 정말 학생 같은 마음으로

그때는 무엇을 했는지, 나는 어땠는지.

점점 희미해져 아쉬운 추억들을...

다시 잘 담아오겠습니다.”

”



왼쪽부터 테크놀러지 전용기개발팀 조경래, 이지원, 정혜윤, 이흥우, 이동기 사진.



탈출. #1

“애들아~ 뛰어!
어디론가 탈출하듯 나섭니다.
온몸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우리가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



롤러장. #2

“전번도 따고 롤러도 타는
일석이조의 재미가 있는 여기는 어디?”
70년대 고딩들의 아지트 롤러장입니다.
교복에 롤러까지 장착했으니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고딩입니다.



쌩쌩~ 쌩쌩~. #3

우습게만 보였던 네 바퀴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하~ 호호 웃음소리는 끊이질 않죠.
허리를 잡고 기차놀이도 하고, 괜히 품도 잡아봅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는 '우리들의 날'입니다.



혜운이가 짱이야! #4

실은 다른 학교 여자 친구 전번 좀 따보겠다고
아까부터 서성였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숙제도 보여주고 떡볶이도 사주는
혜운이에게 잘 해야겠습니다. ㅋㅋㅋ

간식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 #5

탈탈 털어 모은 돈으로 주린 배를 달래봅니다.
찢 계란은 친구 머리에 깨고
쫄면은 입에 물고 쪽 늘어야 제 맛이죠.
라면은 한 젓가락씩 나눠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돌아가다. #6

70년대 롤러장을 뒤로 하고 늦기 전에 발길을 재촉합니다.
꿈 같던 잠깐의 시간여행으로 참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마음은 아쉽지만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오늘을 함께 한 우리들의 우정이 더 돈독해졌기 때문입니다.

go back to the present

“
2019년의 3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했던 것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학창시절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롤러를 타는 것이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인 것을...



“
내 삶의 단비가 되어줄 아름다운 추억들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때
차곡차곡 쌓입니다.
”

추억 속으로 돌아가 꽃비 같은 위로를 받다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과거를 떠올린다고 한다.

딱딱한 현실을 망각할 수 있는 좋은 틈이기 때문일까? 솔직히 기억 저편의 수많은 밤과 낮, 사람, 감정들은 아련풋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추억을 곱씹고 다가가려는 것은 어쩌면 절실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본질일지도 모르겠다.

그때 그랬더라면

추억을 후회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추억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일이다. 물론 그때의 장면을 열기만 할지, 맛보지 못한 결말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지는 당사자의 몫이다. 하지만 아쉬움이 짙은 추억일수록 우리는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한다. 뒤이어 선택하지 않았던 길의 결말은 어땠을 지를 그리며 쓸쓸한 웃음을 짓는다. 결국 추억 소환의 목적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그때를 그리워하며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느끼는 오묘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다. 마치 혼이 난 아이가 어딘가에 몰래 숨어들어 달콤한 초콜릿을 입에 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간의 똑똑한 뇌는 좋지 않은 기억은 산산조각 내고 아름다운 기억만 간직하려고 한다. 확률적으로 행복한 이야기가 많을 테니 한 번씩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날 일은 아니다.



어디로 돌아갈까?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내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점은 언제일까?
다시는 가져보지 못할 체온과 감정들로 뒤얽힌 첫사랑의 그때?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온 가족 둘러 앉아 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던 그때?
젊음을 무기 삼아 도전과 패기로 배낭 하나 둘러매던 그때?
당신의 '그때'는 언제인가?

<응답하라> 시리즈가 세대를 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때'가 답졌기 때문이다. 10~20대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 등장한 스타에 열광했지만, 40~50대는 내가 한창일 때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때에 빠져들었다. 7080세대는 직접 경험했던 또는 간접적으로 공감했던 드라마의 상황들을 매개로 추억앳이를 한 것이다.

드라마에 배경이 됐던 정을 따라 흐르던 골목길, 딱딱딱 허물없이 붙어살던 이웃들, 한없이 든든하고 애뜻했던 가족애가 기록과 기억이 되어 추억을 샘솟게 했다. 물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 빈번한 지금은 꿈도 못 꿀 판타지지만 그때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이제와 돌아보니 '그때'가 눈물 나게 그리운 것이다.



자꾸 뒤돌아 보다

삶의 질로 보자면 현실은 편리하기 그지없다.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현재와 과거의 간극은 너무나 크다. 차라리 작년과 올해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예전에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말하는 의미와 비슷하다. 삶은 편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우리는 왜 자꾸 '돌아보기'를 하는 걸까?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가 어려워서라며 무미건조한 답을 내놓겠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니다. 전진하는 시대와 달리 자꾸 후진을 시도하는 우리들의 심리는 바로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 때문이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상황도 여유도 없다. 한 발자국이라도 뒤질세라 전진 궁궁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지나온 삶 속에는 우리의 추억이 될 수 있었던 소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이 분명 있었다. 이제야 그것들을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쉬울 리 없다. 그래서 자꾸 뒤만 돌아본다.

추억, 삶을 위로하다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인간의 심리를 무드셀라 증후군(Methuselah syndrome)이라고 한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의 아름다운 꿈을 자꾸 꾸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무드셀라 증후군이 일종의 현실도피 심리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무드셀라 증후군과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 2006년 영국의 사우샘프턴대 심리학과 연구진은 실험에 참여한 60명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눈 뒤, 한 집단은 과거의 즐거웠던 시절을 자주 기억하는 무드셀라 증후군에 익숙한 사람들로 구성했다. 그리고 나머지 집단은 냉철하지만 매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로 채웠다. 그리고 이들 두 집단에게 슬픔과 낙심이 가득 담긴 자연재해와 관련된 책을 읽게 했다. 그리고 두 집단의 심리적 반응을 살폈는데, 무드셀라 증후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판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울적한 마음을 극복하는 등 안정적인 정서를 보였다. 즉, 과거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을 자주 떠올리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추억을 음미하는 일은 팍팍한 현실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발버둥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를 잘 살아내기 위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 삶의 비바람을 막아줄 방어막 같은 추억. 그것이 많을수록 내 삶에 더 많은 꽃비가 내리지 않을까 싶다.



지나온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

지나온 그 추억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내 삶에 있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겠지요.

어떤 아픔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의 보석들이 되어
이렇게 나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았다더라면

힘들 때 한 걸음만 더 내 딛고,

한 사람에게만 더 가슴으로 진실하게 다가섰더라면
정말 슬플 때 오히려 미소 지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아쉬움이 가득하지만은 않을 텐데라는 미련

이미 살아온 내 삶이 아름다우면서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다시는 재현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것이
내 삶의 남겨진 숙제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에

잠시만 있으면 또 과거가 되어버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좀 더
내 삶에 진지하게 임해야겠습니다.

- 박성철 <내 삶의 남겨진 숙제> 중에서 -

사진 타고 떠나는 추억여행



수해복구봉사

2003년 우리나라는 태풍 매미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수해지역 중, 저희는 경북 영양 지역을 찾아 봉사를 했었죠. 세플러코리아의 주된 임무는 수해지역을 복구하고, 수해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뿌듯한 일이라서 일까요? 으라차차! 20kg 쌀도 거뜬히 즐거운 마음으로 나르고 계시네요. 참, 잘 보시면 16년 전의 김기정, 이동하, 강미구 부장님의 풋풋한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

2004년 어느 봄날입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하늘은 그야말로 하늘색을 뽐냅니다. 이곳은 경기도 부근 예비군 훈련장인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탱크를 배경으로 피구를 하기 위해 팀을 짜는 모습, 고무장갑 모양의 풍선을 부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 긴장감이 느껴지는 줄다리를 시작하기 전 모습이네요. 그게 뭐라고... 손이 까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붙잡았었죠. 모두가 하나가 되고 웃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기

비전화공방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든지 되는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건 착각일지도 모른다.

알고 보면 우리는 전기의 힘에 철저히 의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화학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공기 없이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것만큼이나 싱거운 질문이다.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많이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전기와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단체가 있다.

자연에 한걸음씩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비전화공방이 그곳이다.



전기와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보기

작년에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조용히’ 방영되었다가 ‘소리 소문 없이’ 막을 내렸다. 도시와 문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실험하고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시청률 제조기라 불리던 나영석PD의 유일한 ‘망작’이었지만 시도만큼은 신선했다. 숲속의 작은 집에는 가스, 수도,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삶, 문명이 주는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삶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정된 셈이다.

출연자는 홀로 장작을 때우며 난방을 하고 태양열로부터 살아갈 만큼의 에너지를 얻으며 삶의 불편함을 하나씩 해소해 나간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다. 그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듣거나 아침에 해와 함께 눈을 뜨거나, 한 가지 반찬으로 식사하기 같은 미션을 수행하며 시간을 보낸다. 강원도 벽지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삶이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심지어 확산시켜 나가는 단체가 있다. 전기와 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삶을 지향하는 <비전화공방>이라는 곳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발명가 후지무라 야스유키 선생이 실현한 대안적 삶의 방식에서 시작된 활동인데 한국에는 서울시가 2017년에 처음 도입해 이곳 서울혁신센터 안에 개관하게 되었어요.”

비전화공방 성배경 매니저의 설명이다. 그런데 비전화공방의 활동을 단순히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성배경 매니저는 “전기와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기라는 활동이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일종의 대안적 삶의 방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 누구나처럼 조직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소비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유일한 삶의 공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비전화공방 성배경 매니저





자립하는 삶을 상상하고 실험하다

이들이 지향하는 '이런 삶'에 다가가려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자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의 이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플러그를 뽑는 아주 단순한 행위에도 마찬가지로요. 그 뒷면을 보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수많은 선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자각하다 보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이 필요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나 화학물질을 적게 쓴다는 행위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의 이면이란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발생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이고 취약한 삶을 살아가는 지가 드러났다. 일상이 말 그대로 마비되다시피 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편리함 뒤에는 케이블을 깔고 점검하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화재를 계기로 우리가 그토록 지향하던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태롭게 지탱되고 있는 사회인지 새삼 확인하게 된 것이다.

비전화공방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도 '자립하는 삶'이다. 그래서 주요 활동도 자립하는 삶의 방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큰 축을 이룬다. 우선, 1년에 12명씩 비전화제작자들을 모집해서 자립적 삶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이른바 '비전화제작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전화제작자들은 1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한 농작물로 밥을 해 먹으며, 직접 집을 짓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만든다. 돈을 벌 수 있는 작은 비즈니스도 개발한다. 2017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3기를 모집 중이다. 비전화제작자 과정을 마친 이들 중에는 바쁜 도시의 삶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 직접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삶을 시작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시민강의&제작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테면 '비전화기술로 어떤 것까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시민강의를 하고 야자껍질 활성탄을 사용해 비전화정수기를 만드는 워크숍도 실시했다. 비전화정수기는 염소를 제거하는 데 특화된 정수기라 도시에서 쓰기에 아주 적합해서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순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닭장 만들기도 진행한 적이 있다.

실험적 공간, 비전화카페

지난해에는 실제로 비전화의 공간 즉, 전기도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실험을 했다. 비전화제작자들이 직접 땅을 파고 터를 닦은 후 나무로 벽체를 세우고 서까래를 올려 '비전화카페'라는 공간을 개관한 것이다. 14평 남짓한 크기의 공간이다.

바닥과 지붕은 왕겨로, 벽은 벗짚을 압축해 단열했다는데 지난 겨울 장작난로 하나로 후끈한 겨울을 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전기가 필요한 일체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음식도 대부분 냉장고가 필요 없는 발효식품들이다. 카드 리더기가 없으니 카드결제도 안 된다. 대신 비전화공방에서 개발한 비전화정수기, 비전화착유기(햇빛건조기, 비전화 커피 로스터기, 화목난로(장작난로), 램프) 등을 사용한다. 이곳에서 얻은 수익은 모두 서울시로 환원되고 있다. 아직은 실험적인 시도라 큰 이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입소문은 꾸준히 타고 있다.

비전화공방의 활동을 들여다보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단순히 전기와 화학물질이 없던 옛날로 회귀하는 삶이나 사람들과 고립된 채 '숲속의 작은 집'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전기와 화학물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한번쯤 의문을 품어 보는 것이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다.



비전화공방



“나, 돌아갈래~”

잇을만 하면 찾아오는 ‘직장인 우울증’



직장인 김씨는(34세) 아침에 눈을 뜨면 두통이 찾아온다. 바로 회사 갈 생각 때문이다.

과도한 업무량과 잦은 야근도 힘겹고, 이전 업무 집중도도 떨어져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

직장인 이씨는(29세) 항상 밝고 일 잘하는 직원으로 통한다. 하지만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상담 중이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늘 웃으려 애쓴 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와이 미 증후군, 슈퍼 직장인 증후군, 번 아웃 증후군,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 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들은 모두 직장인 우울증의 일종으로 원인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명칭을 가졌지만 증상은 ‘우울증’ 하나로 나타난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 심각성을 받아들여 정부는 2013년부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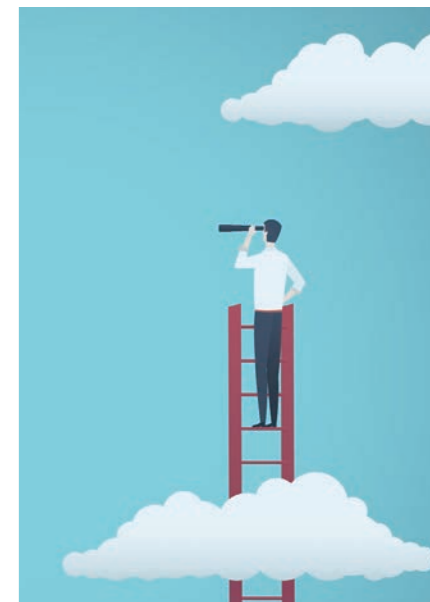
“앙앙~~ 회사가기 싫어요!”

취업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요즘, 긴 고난과 부침을 이겨내고 사원증을 목에 걸었으니 이제는 꽃길만 견게 될까? 입사 3년 안으로 반드시 찾아오고,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온다는 직장인 우울증 때문에 혹 가시밭길은 아닐지 걱정이다.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들처럼, 회사 가기 싫다는 어른들이 늘고 있다. 리서치회사의 설문조사나 통계자료만 봐도 심각성이 엿보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한다. 회사 우울증이란 밖에서는 활기차지만 출근만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증상을 말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의하면 국민 중 73.4%는 직장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연령별로는 30대(80.9%), 40대(78.7%), 20대(73.4%) 순이다.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직장인 사춘기 관련 빅데이터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7년 우울증 연관어로 ‘회사’ 또는 ‘직장’이 언급된 게시글이 2016년보다 3배 늘었고, 특히 ‘야근’이라는 단어가 우울증 게시글에 언급된 경우는 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일요일 저녁이 되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월요일을 두려워하거나 주말은 왜 이렇게 짧은지에 대한 푸념 섞인 글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온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나 행동들이 으레 습관처럼 내뱉는 하소연이었다면, 지금은 우울증은 물론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 새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1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역시 40대 직장인에서 특히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직장인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 과도한 업무량, 업무성과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급여, 회사 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일에 대한 의욕과 흥미를 잃었을 때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출근 기피 현상, 극도의 무기력감,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이어져 직장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렵게 만든다.



스스로 돌아보고, 알맞은 대처법을 찾아야

직장인 우울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업무과다로 인한 것인지, 직장 내 대인관계로 인한 것인지, 단순히 일상이 지루해서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알맞은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다. 직장인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중 25.9%는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건강만 해칠 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혹시 우울증의 원인이 직장 내 문제라면 직장 상사나 선배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다. 오랜 사회생활로 내공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빌릴 수 있다. 단, 조언을 구할 때는 신체 한탄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삼가야 한다. 불투명한 비전이나 업무가 불만이었던 신입사원 때 자신의 목표와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커리어 맵 노트에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어떤 준비와 과정들로 성취해 나갈지 계획하고 기록해보자. 크고 작은 일들을 이뤄나갈 때마다 달콤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서라면 동호회나 취미활동, 여행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소한 행복을 주는 다양한 활동들은 삶에 활력을 주기 때문이다.

때론 이유 없이 직장인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이 또한 통과의례라는 마음가짐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회의감이나 무기력감 등은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상기시키기보다는 비워내는 연습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 근로복지공단

직장인 우울증

SELF TEST

- ①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든다.
- ② 출근길, 어디론가 떠나는 상상을 자주 한다.
- ③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④ 내가 이리려고 어렵게 취업을 했나 싶다.
- ⑤ 세상만사 다 귀찮고, 스스로 의욕 없음을 느낀다.
- ⑥ 지금 하는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 ⑦ 나에게 맞는 일은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⑧ 이직을 고민하며 일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 ⑨ 요즘 따라 짜증을 자주 내며, 식욕 감소와 불면증이 생겼다.
- ⑩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체크 문항이 6개 이상이면 직장인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직장인 증후군 용어 정리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 • 직장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직장 일에 불만을 갖는 증상.

번 아웃 증후군 • 탈진 증후군으로 단순히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의욕을 잃고 무기력함에 빠지는 증상.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 본인의 감정과 상관없이 겉으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면에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쌓이는 증상.

슈퍼 직장인 증후군 • 누군가 내 자리를 뺏을 것 같다는 생각,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필요 이상으로 업무에 매달리는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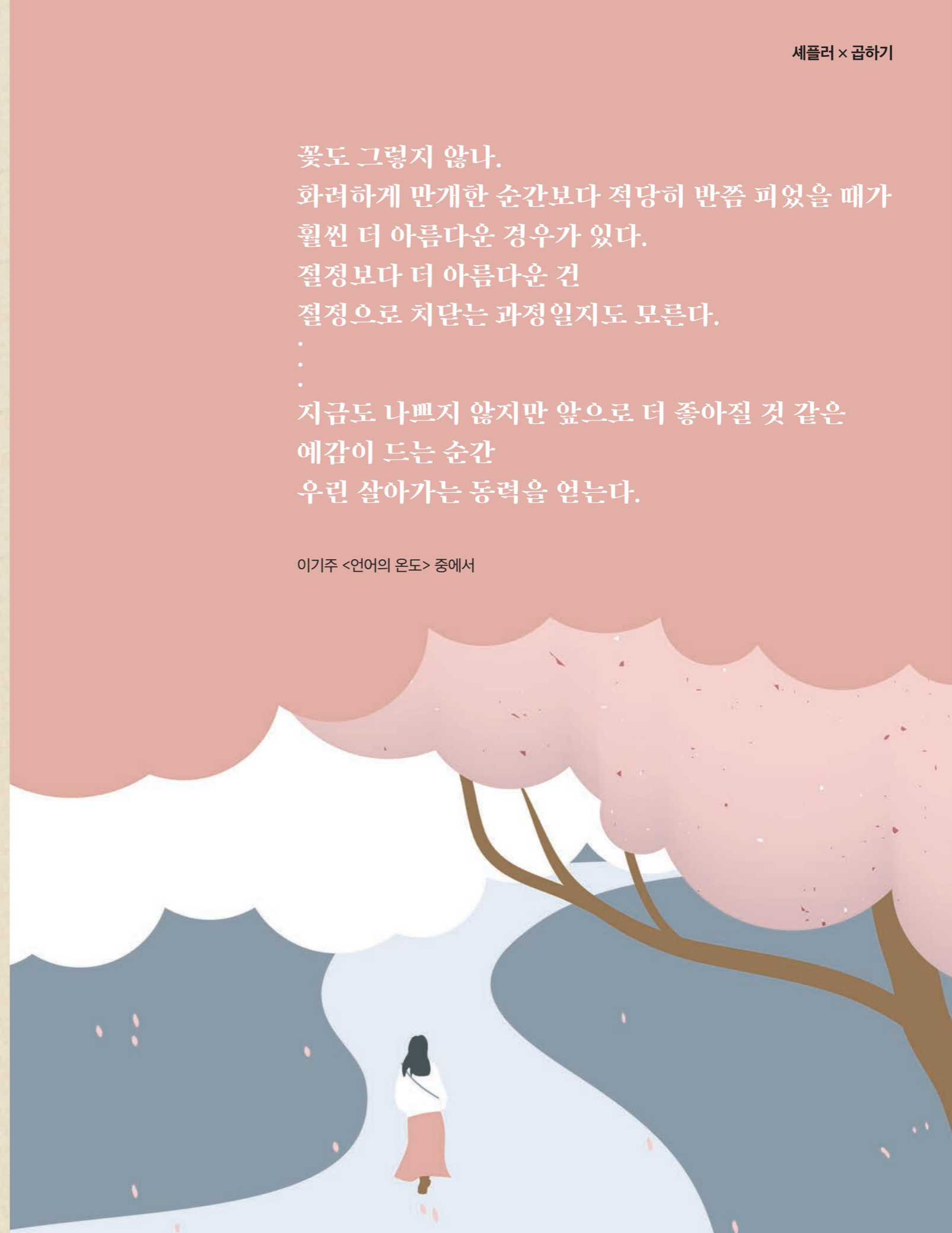
와이 미 증후군 • 모든 일에 불만을 갖고 남의 탓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불편한 시선이나 상황을 '왜 나한테만?'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해 하는 증상.

빌딩 증후군 • 빌딩으로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로 인해 짜증스럽고 피곤해지는 증상.

파랑새 증후군 •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증세로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증상.

꽃도 그렇지 않나,
화려하게 만개한 순간보다 적당히 만쯤 피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있다.
절정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
.
.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순간
우린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다.

이기주 <언어의 온도> 중에서



‘위기는 기회다’ 지속성장 가능한 베어링부품 MU를 만든다



● 2019년 1월1일, 창원공장 베어링부품 MU에 새로운 리더가 왔다. 품질관리 업무만 20년, DGBB 세그먼트장, TRB 세그먼트장을 거쳐 창원공장 베어링부품 MU장으로 온 것이다. 각 사업장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탁월한 문제해결력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그에 대한 기대는 남다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창원공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는 백승호 이사를 만나본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일로 창원공장 3MU장을 맡게 된 백승호라고 합니다. 인터뷰라고 하니 무척 어색하지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웃음)

3MU장은 어떤 업무를 소화해야 하나요?

리더로서 조직의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 과정을 계획하는 일을 합니다. 좀 쉽게 풀자면 각 팀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도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조직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요?

작년 10월부터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조직에 투자가 없다는 문제죠. 투자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직원들 사기나 업무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조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투자를 받기 위한 노력들이지요. 현재 저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은 물론, 우선순위에 대한 효율적인 결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안전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들은 시급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3MU만의 경쟁력이 궁금합니다.

‘팀워크’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결과를 만들어 내기까지 타 MU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또 그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생산성이 높고 실적이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점을 적극 살려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갈 계획입니다.

리더로서 2019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 저희 조직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 ‘원가경쟁력 강화’입니다. 세플러 코리아는 국내 경쟁사 보다 원가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프로세스 및 메트리어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죠.

어떤 리더가 되실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통찰력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줄 알며,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직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가 될 생각입니다.



New 리더의 메시지

창원공장 헤어링 부품 MU장으로 부임한지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에 노력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위기는 더 크고 더 험난합니다.
 이 또한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의 경쟁력인
 단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강한 조직 (Strong), 스마트한 업무처리 (Smart), 볼헤어링 MU, 테이퍼헤어링 MU,
 전주공장의 지원 역량 강화 (Support),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얼터 (Smile)를 기반으로
 우리는 위기에 강한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한 변화와 혁신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일심동체가 돼서 앞서 나가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인기 있는 리더가 아닌, 존경받는 리더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백승호 3MU장



New 리더에게 전하는 Rolling Paper



정의탁 선삭 세그먼트장

MU장님!
 앞서 2MU LV 세그먼트장 시절
 부터 뛰어난 성과로 유명하셨죠.
 그런 성과의 노하우를 이제 저희
 에게 베풀실 때가 되었네요^^
 많이 가르쳐주시고! 믿고 따르
 겠습니다!
 MU장님께서 이끄시는 3MU!
 2019 survival에서 2022년 best
 plant로 GOGO!

박병진 생산계획팀장

"흐르는 물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
 되, 반드시 작은 웅덩이들을 하나
 씩 다 채운 뒤에야 이르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부도 바다라는 목표
 로 나아가면서 Strong, Smart,
 Support, Smile이라는 MU장님
 의 방침을 하나씩 채우면서 전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업에 선장
 이신 MU장님과 더불어 힘껏 노
 를 젓겠습니다.

문석찬 단조 세그먼트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
 는 모습을 보면, 든든하고 감사합
 니다. 하지만 때론, MU장님의 건
 강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이번에도 잘 해내
 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응원하며, 힘이 되어 드리겠
 습니다.

박건호 품질보증팀장

돌격대장 백이사님!
 이사님은 미국의 인기 전쟁 드라
 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리더
 윈터스 대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전장에서 정확한 판단과 신
 속한 의사결정으로 승리를 얻어
 내죠. 또 부하보다 앞서 나가 싸
 워 그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
 서 늘 혼자가 아니며, 외롭지 않
 습니다.
 조직원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이사님의 모습이 윈터스
 대위와 참 닮았습니다.
 "You go, We go"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부릉부릉~ 슈웅~ ATV·카트 타고 봄바람을 가르다

테크놀로지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Engineering&PM이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에 모였다. 그간 한 팀으로 지냈었는데 얼마 전, 국내와 해외로 분리되면서 아쉬운 마음도 달랠 겸 팀워크를 위해 뭉친 것이다. 따스한 햇살에 살랑거리는 봄바람까지 최고의 날씨가 함께했던 '팀과 함께' 현장을 만나본다.



봄기운, 제대로 충전해볼까?

창원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양산 에덴밸리는 경남권에 유일한 스키 리조트다. 시즌이 지나도 루지를 비롯해 ATV, 카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오늘 '팀과 함께'에서 도전할 첫 번째 액티비티는 바로 ATV다. 모두들 안전모를 챙겨 쓰고 마음에 드는 ATV를 선택한다. 간단한 주의 사항과 조작법만 숙지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ATV. 팀원들은 자신감 넘치는 포스로 부릉부릉~ 시동을 켜다. 하지만 금강산도사진후경이라고 했던가? 사보에 길이 남을 단체 컷 하나를 만들기 위해 팀은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또 외친다.

연습 코스를 두 번 돌고 산길로 진입하겠다는 교관의 말에 팀원들은 핸들을 거침없이 돌린다. 여기저기서 출발을 알리는 거센 바퀴 소리가 들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신이 났다.

“와~~~ 너무 재미있어요!”

선두로 달리기 시작한 김소희 연구원은 엉덩이를 들썩이며 즐거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연습 코스도 신나는데, 진짜 산에서 타면 흥미진진하겠는데요!”

“와~ 오늘 날씨도 끝내주고 기분도 끝내줍니다!”

“자! 그동안 바쁜 일들로 고생 많았는데, 오늘은 열심히 놀고 스트레스는 모두 털고 갑시다!”

도정호 BU장의 응원 섞인 한마디가 환호성을 자아낸다. 3월의 봄을 만끽한 팀원들은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하다.





누가 누가 빠른가?

사무실에서 지어지고 왔던 곰 세 마리 중에 ATV 덕분에 두 마리를 내려 놨다는 황영문 매니저가 다음 코스를 재촉한다.

“와~ 생각보다 재미있는데요! 다음은 카트 도전인가요? 마지막 남은 곰 한 마리는 여기서 내려놓겠습니다!”

ATV가 자연을 즐길 수 있다면 카트는 짜릿한 스피드를 맛 볼 수 있다. 정해진 코스를 따라 마치 경주하듯 달리는 카트. 이번에는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2개 조를 짜 교대로 체험하기로 했다.

“저희 사진 찍어주실 거죠?”

상냥한 김현진 연구원의 요청에 동료들은 엄지를 들어 보이며 걱정하지 말란다.

ATV보다 조작법이 더 간단한 카트가 굉음을 내며 출발을 알린다. 흥날리는 머리카락처럼 팀원들의 마음도 가볍다. 목소리도 제스처도, 웃음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경쾌하다.

“와~ 오늘 완전 소풍 온 기분인데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리프레쉬가 팍팍됩니다!”

매일 건물 안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와 씨름하던 팀원들은 오랜만에 파란 하늘 아래서 봄햇살에 일광욕도 하고 봄바람 마사지도 받으니 저절로 기운이 난단다.

한 바퀴를 돌고 나니 제법 운전법이 익숙해졌는지 팔을 들어 돌리고 포즈도 취하면서 꽤 여유롭게 타는 모습이다. 1조의 운행이 끝나고 2조 운행이 시작되자 김현진, 김소희 연구원은 여기저기 핸드폰을 갖다 대며 팀원들의 모습을 열심히 담는다.

웃고, 웃고, 또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팀은 또 한 번 꼭 출연하고 싶다는 당부를 남겼다.



부릉부릉~ 슈웅~



위쪽 왼쪽부터 김무홍 수석연구원, 윤형석 수석연구원, 김동규 책임연구원, 배수현 선임연구원, 황영문 국내팀 매니저, 이인욱 선임연구원, 도정호 BU장, 김현진 연구원
아래쪽 왼쪽부터 조영진 연구원, 김승준 주임연구원, 이석훈 책임연구원, 김소희 연구원

'퓨전 한정식 예원' 12첩 반상으로 대접받는 느낌이랄까?

경기도 먹거리

매우 주관적인 평가는 : ★★★★★☆



#1.

'삼겹살에 소주 한잔'의 틀을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임금님 수랏상 같은 만찬을 즐겨보고 싶을 때 경기도 시흥 물왕저수지 주변의 맛집거리로 고고! 간판들이 너나없이 '원조맛집'이라며 잡아끌지만 일단 무시하고 골목 안쪽까지 쭈욱 직진! 짜잔~ 너른 마당을 지닌 대궐 같은 기와집이 눈에 들어와요.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한정식 예원'입니다. 입구부터 임금님의 12첩 반상을 떠올릴만하지요? 기와집이지만 전면이 통유리로 된 집이라 '퓨전 한정식'의 세련된 느낌이 돋보이는군요. 일단 느낌적인 느낌은 합격점!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2.

오! 입구부터 직접 빛은 듯한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어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상차림에 오르는 그릇들도 다 도자기라고 하는군요. 이젠 '뚝배기보다 장맛'은 옛말이죠. 비주얼 시대에는 플레이팅이 식욕을 좌우하잖아요. 물론 맛은 기본. 그럼 이제 맛 품평 들어갑시다!



#3.

메뉴판을 스욱 스캐닝 한 후 큰맘 먹고 제일 싼 코스를 건너 뛰어 두 번째 코스를 주문했어요. 맨 먼저 나온 흑임자죽, 한입 떠먹는 순간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들어요. 달지 않고 고소해서 맛도 좋군요. 이어서 입안을 상큼하게 만드는 야채샐러드와 입맛을 돌게 하는 매콤한 잡채가 에피타이저로 나와 미각을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예쁜 그릇에 담겨져 나오니까 더 먹음직스럽죠.



#4.

자, 오늘의 요리 라인업! 코스 기다리는 게 감질나서 상다리 휘어지게 한상으로 가득 차려달라고 했어요. 들깨탕, 떡갈비, 보쌈, 탕평채, 새우튀김 등 12첩 반상을 뛰어넘는 비주얼이지요. 주로 전통 식재료를 썼지만 퓨전 한정식이라 깔끔하면서도 화려해 보여요.



#5.

잠깐! 요리들의 비주얼이 무너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인증 샷부터 한 컷 찰칵이죠. 이왕이면 '커플 인증 샷'으로 한입 크게 베어 물고 행복해 하는 모습, 꿀꺽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목 넘김이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너 한입, 나 한입 하며 서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느라 바빴던 맛집 탐방이었다면 대성공입니다. 익숙하고 평범한 한식의 틀을 벗어나 색다른 식재료나 레시피를 더한 한식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을 때 '퓨전'에 도전해 보세요.

식사를 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 **안산공장 엔진부품 세그먼트**
 팀원들이 회사 밖에서 특별한 회동을 가졌다. 일반관리직 9명 현장전문직 81명 등으로 구성된 팀인데 이날 회동에는 왕재현 팀장을 비롯해 김광동 사원, 정경옥 팀리더, 안철성 팀리더 등 4명이 함께 했다. 회동 장소는 시흥 물왕저수지 인근의 퓨전 레스토랑. 팀을 맡은 지 두 달째 접어들었다는 왕재현 팀장이 직접 골랐다고 한다. “그동안 팀원들과 회식을 몇 차례 하긴 했지만 삼겹살집에서 소주 한잔하는 정도였어요.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팀원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팀장님이 아침부터 인자하신 이유

“우와, 우리 집 한 달 치 식단이 한꺼번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상차림을 보며 팀원들이 탄성을 질렀다. 왕재현 팀장은 “몇 년 전에 사보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사보 나온 걸 보니 좀 더 열심히 찍을 걸 싶더라.”며 팀원들의 미소를 재촉한다. 안철성 팀리더도 “저도 6~7년 전에 사보촬영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식 사진 두 번 찍는 기분이었어요.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사진촬영은 없다고 다짐했는데 오늘은 팀장님만 믿고 왔어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정경옥 팀리더 역시 “사보 볼 때마다 팀 소개 코너를 유심히 보곤 했어요. 우리 팀도 한번쯤 소개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어요.”라고 맞장구를 치며 한창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순간이었다. “어쩐지 오늘따라 팀장님이 아침부터 굉장히 인자하셨어요. 오더도 많지 않아서 웬일이신가 싶었는데 찍다보니 왜 그러지 짐작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ㅋㅋㅋ” 입사 2년차 팀 막내 김광동 사원의 해맑은 농담에 팀원들이 참았던 폭소를 터트리며 손뼉을 쳤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카메라 눈치 보라, 미소 지으라 신나게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심전심했던 것이다.

생산팀도 고객만족에 눈 떠야

2년차 팀 막내와 20년차 선배들이 격의 없는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팀 분위기가 훈훈하다. 팀원들은 왕재현 팀장이 엔진부품 세그먼트 팀장으로 오면서 달라진 것이 많다고 한다. 생산팀 팀장으로 품질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오면서 생긴 변화다. “아무래도 생산팀이다 보니 생산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팀장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가 결국은 ‘고객만족’이라는 점을 일깨워주셨어요.” 왕재현 팀장이 팀을 맡은 직후 팀원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SWOT 워크숍을 열었다고 한다. 당시 팀장은 물론, 팀리더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팀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때 의견을 모은 팀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리덕션 프로젝트’이다. 두 달 남짓 만에 약 1억 5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 팀의 팀리더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생산 부문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예요. 경력 믿고 현장 용어로 ‘곤조’를 부릴 만도 하지만 팀원들은 새 팀장님이 일을 추진하실 때 토를 단 적이 없어요. 팀원들이 그만큼 팀장님을 믿고 따른다는 뜻이지요.” 처음에는 카메라 눈치 보느라 영 어색한 표정을 짓던 팀원들. “열심히, 맛있게 먹으면 사진도 예쁘게 나온다.”는 왕재현 팀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폭풍 젓가락질이 시작되었다. 팀장과 팀원들이 만난 지 이제 겨우 두 달째라지만 분위기는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팀처럼, 혹은 가족처럼 화기애애했다.

TALK. TALK..

SCHAEFFLER TALK

← 그룹채팅 4 왕재현 팀장, 안철성 리더, 정경옥 리더, 김광동 사원

왕재현 팀장

이번 주간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엔진부품 세그먼트로 보직 전환 후 ‘식사를 합시다’ 코너 섭외를 받았어요. 사실 고민이 많았지만 여러분과 또 다른 경험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미리 묻지 않고 참여를 결정했어요. 결과적으로 매우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김광동 사원



상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만 짧게 느껴지는 식사였어요!



안철성 리더

광동이가 많이 배 고팠구나? ㅎㅎ



김광동 사원

또 찍고 싶습니다^^



왕재현 팀장

광동~~ 그럼 또 해볼까? ㅎㅎㅎ



김광동 사원

네, 팀장님 좋습니다!!!



정경옥 리더

결혼식 상견례 이후 10년 만에 먹어본 한정식이었어요.



안철성 리더

처음엔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또 지나니 좋네요~



왕재현 팀장

사실 나도 부담스럽긴 했어.



왕재현 팀장

다음에 기회가 또 온다면 우리 설악산 정상? 어떠려나??



안철성 리더

케이블카~~!! 정상 아래 거기까지만요, 팀장님.



정경옥 리더

좋아요 케이블카~~



김광동 사원

저희 팀원들이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go~go





PC방 키즈들 어른이 되다

e스포츠 동호회

게임은 협업과 닮아

e스포츠(Electronic-Sports)란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을 통해 승패를 가르는 스포츠를 통칭한다. 특히 요즘 가장 인기 있는 'LOL(League of Legend)'은 농구처럼 10명이 5명씩 한 팀을 이뤄 상대팀과 맞붙는 게임이다. 팀 게임이라 함께 하는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 팀이 어떤 전략을 펼치는데 따라서 게임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팀의 전략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어쩌면 이들이 즐기는 게임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협업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회원들은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한창 PC방이 생겨날 무렵 초등학교에 입학해 게임을 즐기던 세대들이라 어찌 보면 저희가 PC방 1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e스포츠 동호회의 총무인 강세진 대리는 앞선 세대들이 바둑을 두고 당구를 치며 시대의 문화를 만들었듯이 젊은 세대들도 PC게임 문화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PC게임을 주로 하는

동호회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회원들 연령대의 폭을 넓히고,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로 키우고 싶단다.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라는 제한된 형태를 벗어나 VR게임이나 오락실 등 유사 활동으로 그 폭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롤파크 내의 PC방은 이미 만원이었던 것. 서로 바쁜 시간을 맞추느라 어렵게 모인 자리일 테지만 회원들의 결정은 놀랍도록 빠르고 쿨했다. 빈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죽이거나 동호회 활동이 빠진 뒤풀이는 없단다. 서로 얼굴 보며 안부를 나누는 것에 의미를 두자며 작별인사를 하고는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겠다고 사무실로 향했고 일부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짧은 시간 잠깐 짬을 내어 가볍게 게임을 즐긴다는 동호회 소개가 딱 들어맞는 풍경이었다.



왼쪽부터 이겨레 사원, 김지용 대리, 강세진 대리, 최진선 대리, 한정규 과장, 김희재 사원, 한영제 대리

● 2018년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당당한 스포츠로 등극한 e스포츠. 즐기는 연령대의 폭이 넓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사내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세플러코리아에도 e스포츠 동호회가 결성돼 활발한 활동 중이다. 업무에 지칠 때면 회원들끼리 조출하게 만나 게임을 즐기곤 한다. 이들이 롤 덕후들의 성지라 불리는 롤파크에서 번개모임을 가졌다.

2019년의 첫 번개모임, 롤파크로 모여라

지난 3월 초, e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이 퇴근 후 번개모임을 가졌다. 시간이 맞는 회원들끼리 회사 근처의 PC방에 모여 한 게임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 사보팀에서도 소식을 듣고 동행에 나섰다. 만남의 장소는 종각 근처의 그랑빌딩 3층에 위치한 롤파크. 롤파크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으로, 카페와 pc방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이다.

e스포츠 동호회는 2015년에 결성된 신생 동호회다. 사내에 PC게임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동호회가 있다는 것이 낯설 수도 있지만 등록 회원 수가 70여 명에 이른다. e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직원들의 수요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는 게임 좋아하는 동료들끼리 가끔씩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치맥을 즐기던 사모임이었어요.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내에 동호회 지원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정식 동호회로 등록하게 되었죠.”

e스포츠 동호회를 결성한 한정규 과장의 설명이다. 분기별로 1~2차례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날은 번개모임이라 10여 명이 함께 했다.





최진선 대리(SCM)
나에게 게임이란 '평생친구'이다.

'아직도 게임하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유년시절에 잠깐 즐겼던 놀이가 아니라 학창시절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한 평생친구 같은 존재이다.

1. 챔피언(캐릭터) : 정글
2. 역할 : 정글은 맵 전체를 구축구석 돌아다니며 지원하는 역할이다.
3. 닳은 점 : 자유로운 포지션이라 좋다



이겨레 사원(TS 국내영업)
나에게 게임이란 '쉬는 시간'이다.

게임은 10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세대가 바둑을 잘 모르듯이 앞선 세대들은 PC게임을 모를 뿐이다. 그들이 바둑을 두며 여가를 보내듯 나는 PC게임을 즐기며 쉰다.

1. 챔피언(캐릭터) : 탑
2. 역할 :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데 멘탈과 강이 중요한 포지션이다.
3. 닳은 점 :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는 포지션이라 좋다.



강세진 대리(TM 해외영업)
나에게 게임이란 '박카스'이다

가끔 박카스 한 병 마시며 힘내고 싶을 때가 있다. 게임은 나에게 그런 존재이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기력을 회복하는 데 게임만한 것이 없다.

1. 챔피언(캐릭터) : 서포터
2. 역할 : 공격자가 공격을 잘 할 수 있도록 옹호하고 적의 공격력을 약화시킨다.
3. 닳은 점 : 닳은 점은 없다. 레오나가 나의 이상형이다.



한영제 대리(TM 국내영업)
나에게 게임이란 '영원한 동반자'이다.

살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짧은 시간 집중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임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1. 챔피언(캐릭터) : 미드
2. 역할 : 순간적인 판단과 기지에 따라 적을 제압하느냐, 적에게 제압당하느냐가 갈린다.
3. 닳은 점 : 책임감 있는 캐릭터라 좋다.

세플러의 롤 덕후들

캐릭터 알아보기

롤 파크에 뜬 e스포츠동호회의 롤 덕후들. 게임 실력은 '롤알못'을 이제 막 탈출한 아마추어들이지만 관심만큼은 레전드 못지않은 덕후급 롤 플레이어들이다! LOL에서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조종할 챔피언(캐릭터)를 선택하여 적진의 플레이어들과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세플러 롤 덕후들의 주요 챔피언(캐릭터)을 소개한다.



한정규 과장(TM 영업)
나에게 게임이란 '수명을 늘리'는 일이다.

얼마 전, TED 동영상을 보다가 수명을 10년간 늘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추천하는 걸 본 적이 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짧은 시간 게임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 때마다 살아나는 느낌이다.

1. 챔피언(캐릭터) : 미드
2. 역할 : 성격이 차분하고 리더십이 있을 때 어울리는 포지션이다.
3. 닳은 점 : 처음부터 롤게임 시작을 미드로 했다.



e스포츠 동호회 함께 e스포츠를 즐겨요

동호회 장점은?

팀을 이루는 게임이라 팀워크와 사회성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평소에 업무 연계성이 없는 사람들도 같은 취미를 통해 즐겁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어요.

뭘 준비해요?

축구나 야구 등의 스포츠처럼 따로 운동복을 챙길 필요도 없어요. 출근복 그대로 PC방으로 GOGO합니다.

게임 실력 보나요?

안 봅니다. 우리 동호회는 게임의 고수들이 아니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도 초보자들 가르쳐 줄 실력은 되니 부담 없이 노크하세요.

만나면 뭐해요?

분기별 1~2차례 정모를 갖고 같이 PC방 가서 게임한 후 뒤풀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PC게임뿐만 아니라 VR게임, 오락실 등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롤 파크(LoL Park)

롤 파크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뿐 아니라 전시 공간과 카페, PC방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이다.

시설구성

- LCK 아레나 : 최대 5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롤 전용 경기장. 한국 최대 규모의 롤 e스포츠 리그인 LCK가 2019년부터 이곳에서 진행된다.
- 라이트 PC방 : 24시간 운영하는 유료 PC방
- 카페 발자위터 : 게임 속 항구 도시를 테마로 한 팬 휴식 공간. 일반인에게도 오픈되어 있는 카페.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3 그랑빌딩 3층
- 가까운 지하철역 : 지하철 1호선 종각역
- 요금 : 시간당 1,500원 (라이트PC방)



두근두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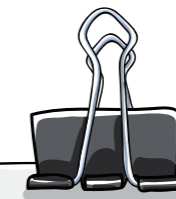
사랑이 담긴 손편지가 왔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사랑의 편지쓰기'를 공모했습니다.
 임직원들의 관심으로 많은 자녀들이 참여했고
 그 중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 3점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작들은 이번 봄호부터 가을호에 걸쳐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는 장려상을 수상한 테크놀로지 이형건 과장(BU 새시&엑세서리/액츄에이터 엔지니어링)
 자녀인 이성경과 안산공장의 왕희성 과장(Customer Service) 자녀인 왕루비의
 손편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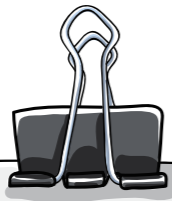
- 최우수상 서울사무소 이선종 매니저(중부지사 해외영업) 자녀 이찬준
- 우수상 안산공장 김명수 사원(엔진부품 세그먼트) 자녀 김소양
- 우수상 창원공장 오계식 주임(대형볼베어링세그먼트)자녀 오수현
- 장려상 안산공장 김인구 사원(벨트&체인) 자녀 김동우
- 장려상 테크놀로지 이형건 과장(BU 새시&엑세서리/액츄에이터 엔지니어링) 자녀 이성경
- 장려상 안산공장 왕희성 과장(Customer Service) 자녀 왕루비



사랑하는 엄마아빠께.

엄마.아빠 저는 여쁜 첫째딸 성격이예요.
 엄마아빠께 처음으로 편지를 써 보는데 엄마아빠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써요.
 저를 낳아주시고 8년동안 사랑스럽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동향하고요 다나게 되었는데 동생 성원에게 좋은언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엄마아빠 말씀도 잘듣고, 제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엄마아빠도 저를 도와주세요.
 성원도 잘 돌보고 가끔씩은 사울때도 있지만 자꾸는 싸우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른이 될때까지 옆에 항상 있어주세요.
 엄마아빠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요. 사랑해요.♡
 우리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자요. 비행기라고 제주도로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싶어요. 우리가족 모두모두 다 사랑해요.♡♡





아빠께

오루비

아빠 저 루비예요. 아빠가 책이나 공부를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는 글도 아빠가 알려 주셔서 이렇게 예쁜 글씨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첫 학교를 간다고 해서 책가방도 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옷도 사 주시고 신발도 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곳에도 데려다 주시고 장난감도 맛있는 음식들도 아니면 인형도 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쁜 바다가 리종도 데려가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선물 장난감, 신발, 옷, 인형, 팔요 없어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 사랑해요. 루비 올림

3월 17일 일요일



꽃 피는 아몬드 나무 | 1890년 | 73.5cm x 92cm | Van Gogh Museum 소장

꽃 피는 아몬드 나무

고흐가 사랑한 동생 테오의 아기가 태어났다.
 그는 조카 이름이 빈센트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기뻐한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 피는 아몬드 나무.
 그것은 조카 빈센트가 강인하고 밝게 자라길 바라는 고흐의 마음이다.
 따스한 봄기운과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조카를 향한 고흐의 사랑이 느껴진다.

세플러, 도시화 해법을 개발하다

● 사람들은 자석에 철가루가 달라붙듯 도시로 모여들고 있다. 사람들은 직장, 보안, 번영, 그리고 자식들의 더 나은 삶을 찾겠다는 희망을 갖고 도시로 모여든다. UN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세플러는 이런 도시화와 관련된 도전적 과제에 맞서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도시화를 기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에서, 충칭과 그 주변지역은 이미 오스트리아 정도 크기를 접하며 3,000만 명의 보급 자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같이 성장하고 있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가 만들어낼 징진지 메트로폴리탄 계획지역에는 1억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도 이동성과 편안함을 원한다. 다카(Dhaka)와 같은 도시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1평방킬로미터 당 47400명의 인구밀도를 보여주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다. 베를린이 1평방킬로미터당 4,000명의 인구밀도를 갖는 것을 생각하면 비교가 쉽다.

세플러는 도시화를 미래 주요 이슈의 하나로 생각한다. 도시화는 세플러에게도 현대의 업무현장, 프로세스, 생산시설, 물류, IT, 지속가능성과 연관되었을 때 중요 관심사이다. 'E-모빌리티'는 'Agenda 4 plus One' 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히 도시화와 특별한 연관이 있으며 디지털화의 맥락에서 회사에 완전히 새로운 기회와 사업영역을 열었다. 세플러는 환경친화적인 차량과 메가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 이동 수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저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엔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의 75퍼센트 가량을 도시에서 소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에너지 소비를 보여주는 도시들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특히 도시에서 훨씬 크다. 2015년, 토론토 대학은 1000만 이상의 거주민을 보유한 27개 메가시티를 대상으로 연간 1인당 에너지(전기, 석유, 가스, 석탄) 소비량을 분석했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 (단위: 테라와트시(TWh))

- 1. 미국, 뉴욕 : 784
- 2. 일본, 도쿄: 678
- 3. 러시아, 모스크바: 556
- 4. 대한민국, 서울: 522
- 5. 미국, 로스앤젤레스: 522
- 6. 중국, 상하이: 456
- 7. 중국, 광저우: 411
- 8. 일본, 오사카: 356
- 9. 이란, 테헤란: 322
- 10. 멕시코, 멕시코시티: 311

비교 기준: 독일, 베를린: 75

출처: 토론토 대학, 2015; 독일연방경제부

가장 혁신적인 도시들

고속인터넷, 스마트한 거리, 혁신적인 하수도 시스템, 똑똑한 초고층 빌딩들, 미래의 대도시는 오늘날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테크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런 도시들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 | | |
|---------------|-----------------|
| 1. 미국, 샌프란시스코 | 6. 미국, 보스턴 |
| 2. 영국, 런던 | 7. 대만, 타이페이 |
| 3. 미국, 뉴욕 | 8. 캐나다, 토론토 |
| 4. 대한민국, 서울 | 9. 싱가포르 |
| 5. 미국, 로스앤젤레스 | 1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출처: 테크 인사이더, 2016



가장 인구가 많은 메트로폴리탄 지역

인구(단위: 백만명)

- 1_ 일본, 도쿄: 38.05
- 2_ 인도네시아, 자카르다: 32.28
- 3_ 인도, 델리: 27.28
- 4_ 필리핀, 마닐라: 24.65
- 5_ 대한민국, 서울: 24.21
- 6_ 중국, 상하이: 24.12
- 7_ 인도, 뭄바이: 23.27
- 8_ 미국, 뉴욕: 21.58
- 9_ 중국, 베이징: 21.25
- 10_ 브라질, 상파울루: 21.10

출처: 데모그래피아, 세계도시 지역들 2018

사진: 아르토 마르티넨/엔스플레쉬

최악의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도시들

1m³당 부유성 고형물
(2.5마이크로 미터보다 작은 입자들)량의 연평균치

- | | |
|-------------------------|------------------------|
| 1_ 이란, 자볼: 217 | 56_ 중국, 베이징: 85 |
| 2_ 인도, 팔리오르: 176 | 1,340_ 독일, 슈투트가르트: 15 |
| 3_ 인도, 알라하바드: 170 | 1,534_ 독일, 함부르크: 14 |
| 4_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 156 | 2,010_ 미국, 로스엔젤레스: 11* |
| 5_ 사우디 아라비아, 알 주바이: 152 | |
| 6_ 인도, 파트나: 149 | |
| 7_ 인도, 라이푸르: 144 | |
| 8_ 카메룬, 바멘다: 132 | |
| 9_ 중국, 싱타이: 128 | |
| 10_ 중국, 바오딩: 126 | |

- 비교기준
- 56_ 중국, 베이징: 85
 - 1,340_ 독일, 슈투트가르트: 15
 - 1,534_ 독일, 함부르크: 14
 - 2,010_ 미국, 로스엔젤레스: 11*

출처: 세계 보건기구, 2016
*광역도시권, 롱비치, 산타 아나 포함

사진: 조슈아 뉴튼/엔스플레쉬

버스와 하이퍼루프 사이

메가시티의 대중교통

거주 인구들의 모빌리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 대도시들과 세플러와 같은 회사들은 지역의 대중교통을 위해 아주 다른 솔루션들을 개발 중이다.

인구는 늘고,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와 도시의 차량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메가시티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이다.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를 예로 들어 보자. 지하철도 열차도 없기 때문에, 2,000만 명의 이 도시 주민들은 오로지 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버스들은 자동차, 모페드, 그리고 심지어 자전거까지 합세한 도로에서 교통체증에 끊임없이 발이 묶인다. 한 가지

가능한 솔루션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인구 2,600만 명의 메트로폴리스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전용도로 15개 선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멕시코시티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이용해 1개 차선 당 하루 5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수도, 라 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케이블카 시스템이 하루에 12만5천명의 승객을 실어 나른다. 800미터 길이에, 하루 10만 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이 홍콩 센트럴 디스트릭트에서 운행되고 있다. 리스본에서는 인상적인 엘리베이터 데 산타 후스타(Elevator de Santa Justa)가 위, 아래 지역을 연결한다. 이처럼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특히 가난한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버스가 많이 이용 될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유동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플러 무버와 바이오 하이브리드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버스 정류장과 버스 시간표를 현재 이용 승객 수에 맞추어 조절할 수도 있다. 앱으로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승차지점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세플러 무버와 바이오 하이브리드는 물론, 이런 시나리오들 모두 무인 자동차 솔루션으로 가능한 것들이다. 세플러와 파트너 파라반(Paravan)사는 여기에 필요한 반자동 제어장치를 개발해 왔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고전적인 운전대와 그것을 조향차축에 연결하는 기계적 연결이 필요가 없게 된다. 세플러의 이러한 솔루션은 여러 제품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많은 나라의 도로 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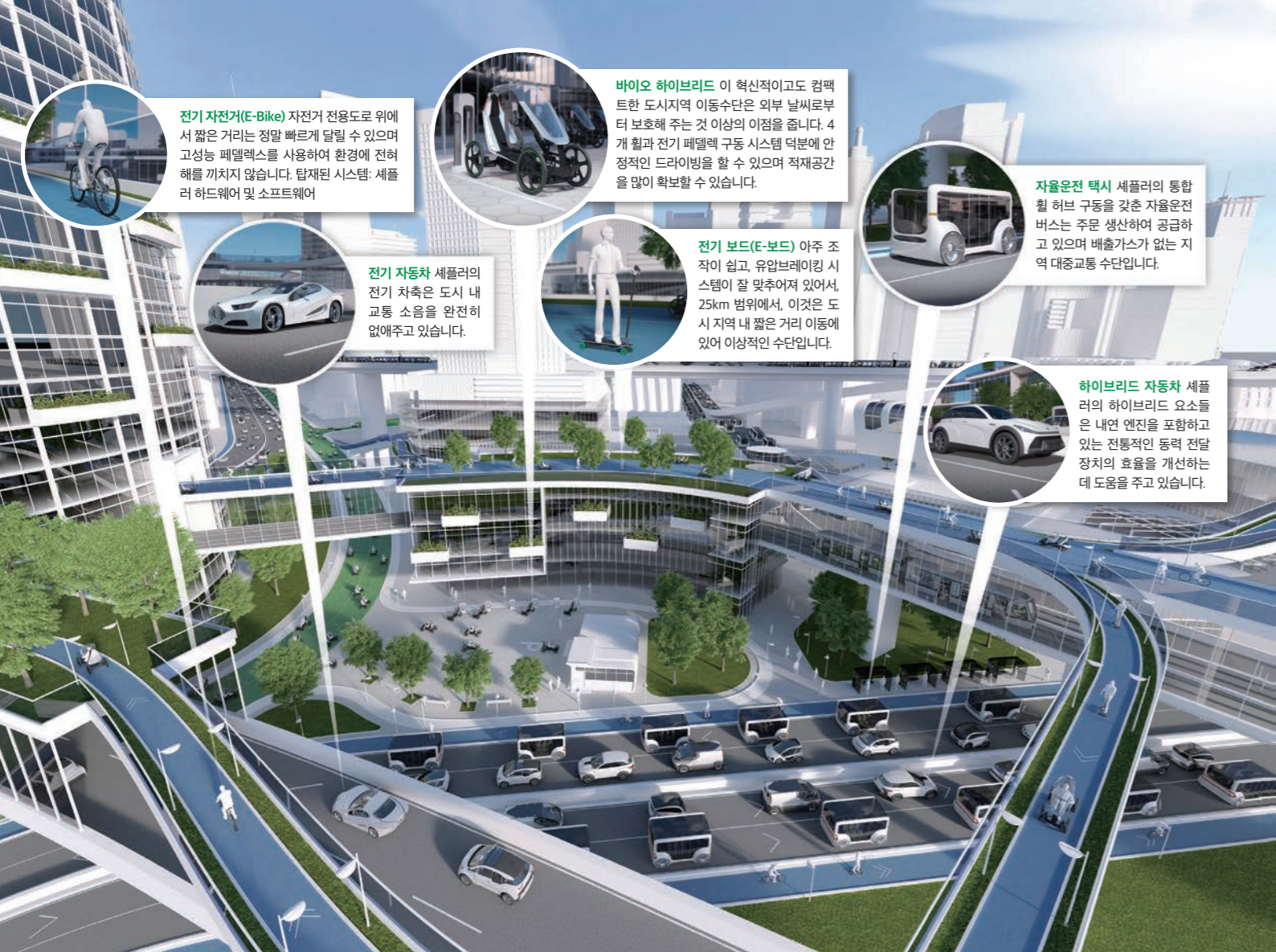
세플러는 바이오 하이브리드의 화물차 버전 또한 내놓을 계획이다.



세플러 무버: 전기휠 허브 구동, 90도 회전과 모듈식 디자인 덕분에 이 콤팩트한 플랫폼은 도시지역에서 다양한 이동식 솔루션으로 유연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확장 축소 가능하다.

최초의 바이오 하이브리드 프로토타입은 2016년에 제시되었다. 자전거와 유사하지만 네 바퀴여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날씨에 대한 보호장치가 장착되어 한결 편안하다.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화물칸을 갖고 있다.

세플러 무버: 전기휠 허브 구동, 90도 회전과 모듈식 디자인 덕분에 이 콤팩트한 플랫폼은 도시지역에서 다양한 이동식 솔루션으로 유연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확장 축소 가능하다.



전기 자전거(E-Bike)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서 짧은 거리는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며 고성능 페달렉스를 사용하여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탑재된 시스템: 세플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바이오 하이브리드 이 혁신적이고도 컴팩트한 도시지역 이동수단은 외부 날씨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이상의 이점을 줍니다. 4개 휠과 전기 페달렉스 구동 시스템 덕분에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 있으며 적재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세플러의 전기 차축은 도시 내 교통 소음을 완전히 없애주고 있습니다.



전기 보드(E-보드) 아주 조작이 쉽고, 유압브레이크 시스템이 잘 맞추어져 있어서, 25km 범위에서, 이것은 도시 지역 내 짧은 거리 이동에 있어 이상적인 수단입니다.



자율운전 택시 세플러의 통합 휠 허브 구동을 갖춘 자율운전 버스는 주문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배출가스가 없는 지역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플러의 하이브리드 요소들은 내연 엔진을 포함하고 있는 전통적인 동력 전달 장치의 효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플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한 운송수단을 선보였다. : 자율 주행 운송수단인 세플러 무버는 예를 들어 행인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이동하길 원하는 경우에도 앱을 통해 부를 수 있다. 세플러의 또 다른 아이디어는 교통량이 아주 많은 지역에서 이용하기에 이상적이고 적합한 운송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목적 바이오 하이브리드를 이바이크(E-Bike)와 결합하게 되면, 다재다능한 바이오 하이브리드는 이바이크 대형 차량의 운송 능력을 결합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이동 수단이다. 바이오 하이브리드는 상품 수송용 화물 차량이나 1인용 차량으로 도시에서 자신만의 효율성을 찾아나갈 것이다.

미래가 갖고 있는 것 미래를 미리 보는 모험을 떠나봅시다. 엘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는 고속으로 달리는 초고속 터널을 통해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지들로 보내주고 있을 것이다. 택시 드론은 공중으로 빠르게 승객을 수송해 줄 것이다. 전기화와 디지털화 덕분에, 지역 수송 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으며 운영스케줄과 능력 활용치는 최적화시킬 수 있다. 교통 체증은 점점 사라질 것이며 더 짧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운송 수단을 연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는 노력은 이미 진행 중이며 세플러도 페이스메이커들 중 하나이다.

INFO

세플러 바이오 하이브리드

바이오 하이브리드 팀은 최선을 다해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기적 도움받는 승차(시속 25km/h까지)*
- 시동 지원(부스트)
- 50~100 킬로미터 범위
- 회복 모드
- 24인치 타이어
- 높은 교통 안전성
- 운전자 면허/등록 필요없음
- 충전 용이(230볼트 소켓)
- 휴대용 배터리 시스템
- 편안함, 외부 날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 인체공학적 좌석 및 핸들바 조정
- 자동 변속
- 가변적인 화물칸
- 디지털 연결
- 현대 작동 컨셉

*250-750 와트 정격 출력(각국 법규정에 따라)



2018년 품질챔피언, 사장님과 간담회



세플러코리아는 2017년 4월부터 매월 사장님 주관으로 품질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으며, 품질 성과가 우수한 Segment 및 Team에 대한 수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각 MU별 가장 우수한 품질성과를 보여준 Team을 선정하여 우수한 품질성과를 달성하도록 Team을 잘 이끈 Team Leader를 각MU장 및 공장장의 추천을 통해 품질챔피언으로 선정하고 있다. 금번은2018년 품질성과를 기준으로 2대 품질챔피언이 선정되었으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 창원공장 볼베어링 MU 대형 볼베어링 세그먼트 Team Leader 이강길 (58세, 1994. 12월 입사)
- 창원공장 테이퍼베어링 MU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Team Leader 박동현 (46세, 1999. 10월 입사)
- 창원공장 베어링부품 MU 선삭 세그먼트 Team Leader 조현희 (50세, 1991. 3월 입사)
- 전주공장 TRB DTB Team Leader 김학경 (46세, 1994. 7월 입사)
- 안산공장 B&C Brg. Team Leader 임경호 (45세, 2002. 4월 입사)

금번 간담회는 사장님 초청으로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품질챔피언 및 각 MU별 품질보증팀장, 그리고 품질담당임원과 품질시스템 진행 담당자의 참석으로 2019년 2월11일(월) 10:30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사장님의 품질챔피언들에 대한 포상으로 한 가족이 함께 즐거운 외식을 할 수 있는외식상품권 증정을 시작으로 사장님의 간단한 축하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각 참석자들이 수상 소감 및 현업에서 느끼는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사장님과 격의없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부품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창원공장 TRB MU의 HV Segment의 경우 Setter보직에 대한 순환근무의 효과를 많이 보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타부문도 확대 적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특히 노후설비에 대한 공정 능력 하락으로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으

며, 이에 대해 사장님께서 Group이 사회에서 투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어 신규투자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나, 설비투자를 통한 개선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즉석에서 약속을 하셔서 참석자들의 표정을 밝게 했다. 또한 전주공장 TRB의 경우 물량이 많이 감소되어 종업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였으나, 이는 우리 회사 매출의 약 80%를 점유하는 자동차산업분야의 기술적 변화에 따른 당사의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변화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기가죽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우리 스스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장님의 설명에 참석자 모두 깊은 동감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품질보증팀장들의 의견은 사장님의 품질 우선에 대한 강한 경영의지가 모든 종업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품질보증팀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조직의 재정비에 대해 언급함과 동시에 최근 시행을 앞두고 있는 PC-Off 제로 인한 근무시간 제약에 대해 깊은우려를 하였으나, 이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들도 이제는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근무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 또한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는 사장님의 강한 의지에 참석자 모두 이해를 같이 하였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장님과 함께 현안에 대한 문제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으며, 서울사무소에서 간단한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사장님과 간담회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 후 각 사업장으로 헤어졌다. 다만, 사장님의 일정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9 AAM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



지난 3월 8일, 프라자호텔에서 제1회 2019 AAM(자동차 애프터마켓) 대리점 신년회를 가졌다. 세플러코리아와 AAM 대리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AAM사업부 파트너사인 대리점 13곳과 당사 소속 임직원 8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비즈니스 현황과 정책, 계획 공유 및 시장 정보 교류를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로 고객사에 세플러 브랜드 가치 및 신뢰를 쌓아가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AAM 대리점 대표자들도 이런 자리가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형적인 비즈니스의 틀을 벗어나 상호발전을 위해 함께한 이번 행사는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꼽히는 '동반성장'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e-F@ctory Alliance에서 Industry 4.0 솔루션 소개



지난 3월 28일 세플러코리아는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e-F@ctory Alliance 파트너회에 참석해 세플러 그룹의 Industry 4.0 전략과 기술을 소개했다. e-F@ctory alliance는 컨소시엄 형태의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에서 FA(Factory Automation)통합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미쓰비시전기 FA 기기와의 접속 친화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기기를 보유한 파트너사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SI 파트너사들을 모집해 지난 2018년 3월에 출범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기기(9), 소프트웨어(11), SI 파트너(22), 컨설팅 및 교육파트너(5) 부분에서 총 47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의 화두 중 하나인 예지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진단솔루션인 SmartCheck와 SmartQB 제품을 가지고 기기 부분 파트너사로 Alliance에 가입돼 있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됐는데, 특히 2부에서는 세플러코리아 산업기계 사업기획의 박성호 부장이 Schaeffler의 Industry 4.0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세플러의 Industry 4.0 전략과 제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가졌다.

세플러코리아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특약점들을 대상으로 SmartCheck 솔루션을 소개하고 Alliance SI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7기' 모집



세플러코리아가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7기'를 모집한다. 봉사단은 세플러코리아가 운영하고 (사) 함께하는 사랑밭이 협력한다. 이번에 선발될 7기 또한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봉사활동은 벽화 그리기, 베트남 아동을 위한 GIVE 책가방을 만드는 등 총 4회로 계획돼 있고, 해외 활동은 6월 말에서 7월 중으로 베트남을 찾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15명으로 서울 및 국외 활동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리더십, 기획, 홍보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 리더십 부문은 팀 리더 및 총괄로서 팀 전반을 이끌게 되고, 기획 부문은 방문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홍보는 봉사활동 전반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을 맡게 된다. 한편, 에버그린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이 수여되고 향후 세플러코리아 입사 지원 시 우대 혜택이 있다. 7기 최종 합격자 명단은 4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BS 동행 프로그램 후원



지난 3월 21일, 세플러코리아 남부지사 직남영업(구 부산지점) 임직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가졌다. 이번 일정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 KBS 동행 프로그램 후원의 일환으로 '제199화 할머니의 숨비소리'에 출연한 사례자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사례자 가정은 해녀인 할머니, 뇌경색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 아들 내외의 이혼으로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어린 손자로 이루어진 조손 가정이다. 임직원들은 이 날 몸이 불편해 자유롭게 놀아주지 못하는 할아버지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 할머니를 대신해 손자 지원이와 축구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편, 세플러코리아는 지난 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600만 원을 후원했으며, 이 기금은 동행에 출연하는 사례자들에게 배분돼 전달됐다. '제199화 할머니의 숨비소리' 사례 가정도 세플러코리아의 후원금이 전달된 가정 중 한 곳이다.

5G 자율차·배송로봇 대도시 교통혁명 시작됐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올해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이 신개념 모빌리티(이동수단)를 잇달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이제 기본이다. 기업들은 보다 구체적인 미래 이동수단의 모습을 보여주며 교통체증과 주차난, 공해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플러 그룹 또한 6일(현지시간) 개인용 초소형 전기차 두 종류를 공개했다. 세플러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고 있는 피터 구츠머 부사장은 이날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도시에서 자전거를 대체할 개인용 초소형 전기차 '바이오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그는 "바이오 하이브리드는 소형차 3분의 1의 공간만 있으면 될 정도로 작고, 특별한 면허도 필요 없다"며 "올해 중 시험주행을 마치고 내년부터 개인용과 화물용 두 가지 버전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품사인 세플러가 초소형 전기차에 주목한 것은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하이브리드 콘셉트를 완성차 업체들이 수용해 생산에 들어가면 필요한 부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Mail Box

세플러코리아 사보 <세플러+원> 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세플러+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보내주세요. 사보에 적극 반영하고,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 엽서 보내는 방법
1. Mail Box 사진을 찍어서 minyje@schaeffler.com(커뮤니케이션&브랜딩 민유정 과장 앞)으로 보내주세요.
 2. 큐알코드를 찍으면 메일이 나옵니다. 메일에 적어 보내주세요.

● 봄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칼럼과 아쉬움이 남는 칼럼은 무엇인가요?

● 참여 신청란 <테마 즐기기> · <팀과 함께> · <식사를 합시다> · <덕후열전>은 세플러코리아 사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참여하고 싶은 코너와 이유를 적어주세요!

독자 퀴즈

뇌가 섹시한 남녀들이 푸는
(((뇌섹남녀문제)))

Q. 일곱 개의 글자를 지운 후에도 여전히 답이 18이 되도록 만드세요.

FIVE PLUS SIX PLUS SEVEN

겨울호 정답



1. 브라질 리우 축제

지난 호 당첨자

- 최춘현(안산공장 설비보전), 백용상(안산공장 TSTM), 김현성(안산공장 TSTM)



• 당첨포스팅은 본지는 스토리백스 디지털 세트 기보로만을 선출로 드립니다.